



흡연자의 업무생산성

양산삼성병원 산업의학과 / 박정래

“담배연기와 함께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전문가들은 사업장 금연정책을 도입함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편익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왔다.

최근의 연구들은 흡연자의 업무생산성과 관련하여 업무시간 중의 흡연행위에 소요되는 시간적 비용을 산출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업무생산성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흡연자군의 업무생산성 저하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도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흡연자 대상의 금연프로그램이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효과 이상으로 기업의 업무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그간 흡연자들은 흡연행위가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는 흡연이 뇌에 각성효과를 유도하는 신경전달물질

들을 분비시키면서 일시적으로 두뇌활동을 자극시켜주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분명히 이러한 주장은 의학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다. 흡연행위는 뇌를 각성시켜서 평소에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며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극히 단기간의 두뇌각성 효과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업무생산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흡연행위와 결근 및 업무생산성의 상관성

최근 미국과 스웨덴에서 각각 이뤄진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미국 해군의 여성들에서부터 스웨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흡연은 근로자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업무생산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연구는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보다 업무생산성이 낮고 보다 많은 병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미국 해군에서 근무하는 총 5,487명의 참여 의사를 밝힌 여성들을 대상으로 1996년 3월부터 1년 동안 진행된 코호트 연구이다.

연구진은 성공적인 경력관리의 평가지표로서 복무 연한, 조기 퇴직, 제대의 유형, 임무수행 과정의 오류, 승진횟수, 강등좌천, 비공식적인 결근일수, 연봉상한치, 재임대 등의 제반 항목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상습적인 흡연자군이 과거의 흡연력이 없는 경우에 비해 일관되게 낮은 업무수행정도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는 흡연자군에서 복무 연한을 완전히 채우지 못한 조기퇴직이나 불명예 제대를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강등좌천과 조기복무 이탈의 비율이 높았고, 연봉상한치의 수준 또한 낮았으며, 재임대의 비율 역시도 낮았다.

저자들은 흡연량이 업무생산성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간헐적인 여성 흡연자들의 업무생산성은 비흡연자와 상습적인 흡연자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비흡연자의 5%가 신병 모집

훈련기간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조기 복무 중단을 겪은 데 비해서 간헐적인 흡연자의 6.5%, 상습적 흡연자의 9.5%가 조기복무 중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완전 비흡연자의 6.8%가 임무수행 과오로 퇴출된 반면 간헐적 흡연자의 8.4%, 상습적인 흡연자의 15.6%가 임무수행 과오로 퇴출되었다.

이처럼 미국 해군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흡연행위가 업무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확인되었고, 승진보다는 좌천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크며, 불명예 제대와도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다.

연구진은 “흡연행위는 군복무 중의 불복종 행위, 높은 위험이 따르는 행위 등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 저하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군복무자들의 경우에도 흡연행위가 업무생산성 저하, 결근율 증가, 보다 길고 잦은 업무 중 휴식 등을 포함한 질병 및 저조한 업무 성과 등에 모두 일정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군대 내 흡연행위는 미국 국방성의 주요한 관심사에 해당하는데 역사적으로도 군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흡연율도 높고 중증 흡연자의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입대시점에서의 흡연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여성의 군 경력이 저조하거나 업무수행에

대한 열의가 부족한 것을 예측함에 있어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군입대 모집자들의 초기 훈련기간 중 조기복무 이탈은 미국방성이 처한 심각한 예산낭비의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되어왔다. Klesges 등(2001)은 미국 공군의 지원 모집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에서 흡연이 입대 후 12개월 동안의 조기복무중단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흡연자의 조기복무 이탈로 인해서 미국방성이 군사교육 훈련 과정에 소요하는 전체비용 가운데 연간 1억 4천만 달러를 허비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Lundborg 등(2007)이 14,272명의 스웨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흡연자들이 비흡연자 동료들보다 평균적으로 거의 8배 이상의 병가를 매년 사용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보장데이터베이스는 근로자들의 병가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흡연자의 경우 연간 평균 병가일수가 비흡연자에 비해 10.7배 높았으며, 이전에 흡연자였던 경우는 흡연경력이 없었던 경우에 비해 평균 3.09배의 병가일수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여타의 건강상태를 보정한 후에도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보다 여전히 7.7일 이

상 병가일수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반면 과거 흡연자와 흡연경력이 없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병가일수의 차이가 없었다. 모든 분석결과에서 남녀의 성별에 따른 영향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회사에서 근로자 대상의 금연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근로자의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한편, 업무생산성 손실의 일부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상의 다른 요인들(예; 업무 중 흡연행위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업무 중의 흡연소요시간 산출

부프로피온 등의 금연 전문 의약품을 출시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기업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 SmithKline)에서는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Space to Breathe’ 라고 불리는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의 23개 지사에 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회사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646명의 흡연자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하루당 흡연개비수와 업무시간 동안의 흡연 개비수 등에 관한 기초적 설문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

는 지원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한 것이었다.

여타의 많은 사업장들과 같이 이 회사의 근로자들도 통상적인 업무 중 휴식시간 이외에도 흡연에 따른 휴식시간을 허용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흡연에 따른 업무생산성 손실을 평가하기 위해 담배 한 개비의 흡연시간을 10분으로 산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아직 충분히 입증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Parrott 등(2000)은 담배 한 개비당 흡연시간을 6분으로 산정한 바 있었다. 이 연구에서 흡연시간을 보다 길게 산정한 이유는 과거에 비해 업무 중 흡연에 대한 금지가 보다 엄격한 상태이고, 지정흡연구역의 위치 또한 업무 장소와 보다 멀어졌기에 흡연행위를 위해 오가는 실제적인 이동시간이 더욱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구에 참여한 흡연자들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총 9,896개비를 피운 것으로 계산되었다.

참가자의 13%인 86명은 업무시간 중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558명은 업무시간 중에 총 3,585개비의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했다. 이를 환산하면 흡연자 한 명당 하루 평균 6.4개비의 담배를

업무시간 중에 피우는 것에 해당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흡연자들이 총 597.5시간의 업무시간을 낭비한 것이며, 흡연자가 하루 64분에 해당하는 업무생산성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루 1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근로자들은 흡연근로자들의 23%에 해당하지만, 전체 업무시간 손실의 42%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한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서의 연구(2001)에서는 123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연프로그램을 운용한 결과, 12개월 경과시점에서 참가자의 15%가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며, 또 다른 5% 정도는 12개월 이내에 재발하였으나 이후 완전히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체 흡연근로자를 15%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막대한 기업 재정상의 절약효과를 가져다주며, 건강증진프로그램 활성화에도 강력한 지지효과를 제공한다.

사실 골초 흡연자의 금연 성공은 흡연량이 적은 근로자에 비해 훨씬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골초 흡연자의 금연이 업무생산성의 향상에 미치는 기여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흡연행위에 소요되는 업무시간의 비용 산출

Bunn 등(2006)은 업무 중 흡연행위에 따른 시간적 비용을 금액으로 산출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규모의 미국 근로자들을 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등으로 구분한 후 각 군별 업무생산성 손실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달러수치로 환산하였다.

연구진은 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11개 영역으로 나눈 건강상태와 관련된 업무생산성 손실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현재 흡연자군은 과거 흡연자군이나 비흡연자군에 비해서 보다 많은 결근일수를 기록하였고, 업무시간의 생산성 저하도 가장 높았다.

평균적인 연간 업무생산성 저하가 초래하는 비용에서는 현재흡연자군이 4,430달러로 가장 높았고, 과거흡연자의 경우는 3,246달러, 비흡연자군의 경우 연간 2,623달러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비용의 절반 이상이 업무 중의 비생산적인 시간 소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흡연자군이 가장 높은 업무생산성 손실을 초래하였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였을 때에도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무생산성 평가도구

업무생산성의 평가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아직까지는 객관적으로 공인된 업무생산성의 평가도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여서 연구진이 개발한 주관적인 평가도구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Michael T Halpern 등(2001년)은 미국 항공사의 항공권 예약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흡연상태가 결근 및 업무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흡연자 100명, 현재 흡연자 100명, 비흡연자 100명 등의 대략 3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진은 객관적인 업무생산성의 평가도구로 다음과 같은 객관적 평가지표를 산정하였다.

1. 직원 1인당 직접적인 항공권 판매로 연결되는 월간 요청횟수
2.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항공권 티켓의 취급횟수
3. (여타 예약요청 건에 대응하지 못하는) 개별적인 예약요청 건 해결에 소요되는 평균시간
4. 개별적인 예약요청 건에 대응하지 못하는 공인되지 않는 업무시간 손실 정도
5. 조사기간 동안에 이뤄진 항공편 예약

건의 종합산수 등

또한 주관적인 평가도구로 HWP(Health and Work Questionnaire)라는 자가작성용 설문지를 개발하였는데, 이 도구는 6개의 세부영역에 대한 24개의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6개의 세부영역은 업무생산성(productivity), 성급함/초조감(patience/irritability), 집중력(concentration/focus), 업무만족도(work satisfaction), 상급자에 대한 만족도(satisfaction with supervisor),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personal life satisfaction)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스럽다”에서 “매우 불만족스럽다”에 이르기까지의 10점 반응척도로 응답점수를 구하였다.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에서는 현재 흡연자군이 가장 높은 결근율을 나타냈으며, 과거 흡연자군이 중간을 기록하였다. 결근율은 금연에 성공한 이후에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거 흡연자군은 현재 흡연자군과 비교하여 10가지 항목의 객관적인 업무생산성 평가지표 중 7가지 항목에서 높은 성적을 나타냈는데, 그 평균치가 4.5%였다. 한편 과거 흡연자군의 객관적인 업무생산성은 금연시도 첫 해에는 현재 흡연자군보다 낮았지만, 이후 금연에 성공한 이후인 1년-4년 동안에는 현재 흡연자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과거 흡연자군의 업무생산성 평가 결과는 시간 경과에 따라 비흡연자군의 결과치에 근접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업무생산성의 주관적인 평가항목 가운데 현재 흡연자군이 “타인에 의한 업무생산성의 평가”와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성적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흡연의 사회적 편차와 업무수행능력의 평가

Michael T Halpern 등(2001)의 연구에서는 현재 흡연자군이 ‘타인에 의한 업무생산성의 평가’ 항목에서 비흡연자군, 과거 흡연자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필자는 앞선 호에서 ‘흡연자 없는 사업장 정책’을 소개하면서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미치는 영향을 다룬 바 있다. 여기서는 그 영향의 하나로 흡연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업무수행능력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주로 다루고자 한다. 즉, 동료나 상사에게 흡연자로 알려진 근로자들은 비흡연자들에 비해 보다 낮은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받는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Gilbert 등(1998)이 제출한 기업경영 연구보고서에서는 흡연자에 대한 편견이 직원들의 업무능력평가 본래의 목적을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연구진은 854명의 상급관리직이 아닌 일반 근무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 정도를 평가한 결과, 흡연자들의 업무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연구대상자의 572명(74.6%)이 비흡연자이고 195명(25.4%)이 흡연자인 것을 인정한 가운데, 상급 관리직들은 Likert 5점 구간척도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정도를 평가하였다.

평가내용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경험적으로 유추한 60개의 항목들을 8개 상위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업무수행 정도 평가항목을 추가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흡연자들은 전반적인 업무수행정도(Overall Job Performance / $P=0.038$), 신뢰성(Dependability / $P=0.002$), 적절한 처신(Proper Comportment / $P=0.002$), 긍정적인 업무적 관계(Positive Working Relations / $P=0.002$) 등의 4가지 영역에서 비흡연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상급자와의 원만한 관계(Partnership with the Supervisor), 업무에 대한 헌신(Commitment to the Job), 기술적인 능숙도(Technical Competence), 유머 감각(Sense of Humor), 의사표현능력(Tendency to Speak Up) 등의 나머지 5개 영역은 흡연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인 평가영역 가운데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항목은 없었다.

이 연구 결과는 흡연자의 업무능력 평가 결과가 비흡연자보다 낮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이 총 9개의 업무영역 가운데 4개 영역에 걸쳐 입증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사업장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흡연자들의 업무수행 정도의 평가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편하의 특성

오늘날 흡연자는 사회적인 편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이 이전부터 줄곧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20세기로 들어선 시점에서는 흡연자가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긴 하였지만 두 차례 잇따른 세계대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흡연행위는 사회적인 용인의 대상이 된 바 있다.

특히 1940년대 중반은 흡연이 보편적이면서 남녀 모두에게 매우 매력적인 나만의 취미생활로 간주된 시기였다. 당시에는 담배 브랜드가 흡연자의 사회적인 지위, 개인적인 부의 척도 및 권위를 상징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흡연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용인에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미국보건성 연감(U.S Surgeon General's Report)에서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난 이후 잇따라 흡연이 폐암, 심장질환, 폐질환 및 기타 질병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다룬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이후부터이다. 이후 진행된 연구 결과들은 흡연자들이 높은 결근율, 과도한 의료비용, 흡연자 본인이나 동료 근로자들의 생산성 동반 저하를 초래하여 매년 95 billion dollars 의 추가적인 비용을 기업이 치르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흡연율이 낮은 선진국일수록 흡연자는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는 추세에 있다.

사회적 편견이란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 신체적, 개인적 속성으로 인해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시켜 주는 현상을 지칭한다. 특히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 등과 같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타고난 것에 대한 편견에 비해 일반인들로부터 보다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견을 유발하는 행위가 타인의 눈에 자주 노출될수록 그에 대한 주변인의 편견은 심해지고 고착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사회적 편견의 대상자들이 한 장소에서 무리지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편견의 정도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업무 중의 흡연행위는 일반적으로 행위 유형의 편견(conduct-type stigma)에 해당한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흡연행위를 흡연자들이 어쩔 수 없이 타고난 것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게다가 업무 중의 흡연은 비흡연자에게 건강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기피대상인데다가 회사건물 내의 지정구역 내에서만 제한되어 있고, 흡연자들은 흡연자들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흡연행위를 통해 그 유대감과 결속력이 강해지게 된다.

따라서 업무장소를 벗어난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흡연자들을 무리 짓게 만드는 오늘날의 사업장 금연정책은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보다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Gilbert 등은 흡연자의 성격이 사회적 편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는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로서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 비해 정서적인 냉담성, 자기중심적 성향, 적대감, 신

경질적 성향 등을 보다 강하게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흡연행위와 외향성에 대한 31개의 연구 결과 리뷰, 흡연과 신경증적 강박성에 대한 31개의 연구 결과 리뷰, 흡연과 우울 성향에 대한 19개의 연구 결과 리뷰, 흡연과 불안에 대한 21개의 연구 결과 리뷰, 흡연과 분노 및 적대성에 대한 10개의 연구결과 리뷰, 흡연과 정신질환적 특성들(강박성, 반사회적 성향, 공격성, 편향성, 의견 충돌성, 반항적 성향)에 대한 47개의 연구 결과 리뷰, 흡연과 정신분열증에 대한 4개의 연구 결과 리뷰들을 시도하였다.

Gilbert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만성적인 정신질환적 이상 소견을 가진 개인이나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흡연자일 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비록 그러한 정신질환적 이상 소견을 가진 흡연자의 비율이 실제적으로는 적을 수 있지만, 흡연자와 비흡연자 집단 간에 존재하는 어떠한 사소한 차이라도 대체적으로 흡연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Gilbert의 연구에서 흡연자들이 업무적 신뢰성, 긍정적인 업무적 관계, 적절한 처신 등의 업무능력 평가영역에서 비흡연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성적을 보인 것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마치면서

대체적으로 흡연행위가 낮은 업무수행 정도와 관련성이 있다면 이는 다음의 사실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흡연은 직접적으로 흡연자 개인의 건강관리와 업무적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흡연자들은 업무공간에서 벗어나 지정구역에서 담배를 피워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귀중한 업무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셋째,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영향으로 자신들의 업무수행 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흡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그 개인의 특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낳는 경향이 있다. 흡연을 금기시하는 공공정책의 변화, 흡연행위가 초래하는 본인 및 주변인에 대한 건강 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흡연자에게서 정신질환적 장애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 등의 부정적인 요인들 모두가 흡연행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는 사업장내의 흡연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뒷받침하는 최근의 한 연구는 흡연자인 관리감독자가 비흡연자인 관리감독자에 비해서 부하들로부터 영향력이 떨어지는 지도자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흡연자들의 업무수행능력의 평가 결과가 낮은 것이 사회적 편견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면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인 의미는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흡연자의 업무능력 평가 상의 차별은 연공서열의 강조, 남성위주의 성차별, 특정 인종 및 종교의 우대 등에 못지 않은 부당한 차별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인 의미로 흡연자의 입장에서 금연시도가 본인의 건강증진 이상으로 업무능력의 평가에 미칠 수 있는 부당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암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

참 고 문 헌

1. Conway TL et al. "Women's smoking history prior to entering the US Navy: a prospective predictor of performance." Tobacco Control 2007;16:79-84.
2. Klesges RC, Haddock CK, Chang CF, et al. The association of smoking and the cost of military training. Tobacco Control 2001;10:43-7.
3. Lundborg P. "Does smoking increase sick leave? Evidence using register data on Swedish workers." Tobacco Control 2007;16:114-118.
4. Impact of smoking status on workplace absenteeism and productivity. Michael T Halpern, Richard Shiklar, Anne M Rentz, Zeba M Khan. Tobacco Control 2001;10:233-238.
5. Effect of Smoking Status on Productivity Loss. Bunn, William B. Stave, Gregg M. Kristen E. Alvir, Jose Ma. Dirani, Riad.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October 2006;48:1099-1108.
6. Time cost associated with smoking at work highlighted by baseline survey of employees participating in a workplace smoking cessation programme. Occupational Medicine 2006;56:510. Pdraic J. Ryan and Karen Crampin. GlaxoSmithKline-Employee Health Management.
7. Parrott S, Godfrey C, Raw M. Costs of employee smoking in the workplace in Scotland. Tobacco Control 2000;9:187-192.
8. Cruse SM, Forster NJ, Thurgood G, Sys L. Smoking cessation in the workplace: results of an intervention programme using nicotine patches. Occup Med(Lond) 2001;51: 501-506.
9. Is smoking stigma clouding the objectivity of employee performance appraisal?
10. G. Ronald Gilbert, Edward L. Hannan, Kevin B. Lowe; Public Personnel Management, Vol. 27, 1998